

##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의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Emotionality on Their Smartphone Overuse:  
The Mediating Effect of Mothers' Participation in Play

김은혜<sup>1</sup> 장경은<sup>2</sup>

Eun hye Kim<sup>1</sup> Kyung Eun Jahng<sup>2</sup>

###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emotionality on their smartphone overuse and to verify the mediation effect of mothers' play particip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emotionality and their smartphone overuse.

**Methods:** Research participants include 274 mothers and their children aged 2 to 4 years old. The mothers completed questionnaire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with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ediation analysis using SPSS 23.0.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young children's emotionality showed a positive association with their smartphone overuse. Second, Their emotionality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ir mothers' play participation. Finally, the mothers' play participation was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emotionality and smartphone overuse.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parent education for supporting mothers' play participation to prevent children from developing smartphone overuse.

**key words** smartphone overuse, emotionality, play participation

\*본 논문은 2019년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sup>1</sup> 제1저자

경희대학교 박사과정

#### <sup>2</sup>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부교수

(e-mail : jahng78@gmail.com)

## I. 서론

스마트폰은 크기가 작고 기능이 다양해 ‘손 안의 컴퓨터’라고 불리며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현대인은 언제든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인터넷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적인 용도에서 직장 업무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손쉬운 일처리가 가능해지고 일상생활이 편리해졌지만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태도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는 없다.

국내의 스마트폰 보유자는 2016년 기준 4,646만 명으로 만 6세 이상 인구의 88.5%가 스마트폰

을 보유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구현영, 2011; 이주연, 2011). 선행연구(권연정, 2014)에서도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즐거워해서’, ‘집안일 등을 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과 같은 이유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스러운 점은 영유아시기의 스마트폰 사용이다. 미국 소아과학회(AAP: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에서도 생후 18개월 이전 영아의 경우 스크린 노출을 반드시 피해야 하고 24개월까지는 부모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노출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뇌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영유아가 스마트폰을 통해 자극적인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할 경우 뇌발달이 저하되고 인지, 언어, 정서 영역에서 병리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권장희, 2012). 국내외의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가 매년 청소년, 성인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미국의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 관련 보고서(Common Sense Media, 2013)에 따르면, 2세 이하 영유아의 38%가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6%는 매일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도 영유아의 23.6%가 만1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립, 2013).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관한 연구는 만 3세 이상 유아 및 학령기 아동(김송이, 김현수, 2016; 김현수, 이미연, 2017; 이금희, 김성재, 유혜진, 2020; 천희영, 2015), 청소년(김은영, 임신일, 2014; 변희숙, 권순용, 2014; 신성철, 이기영, 2015)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만 2세의 영아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과다사용 변화 추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스마트폰 중독경향성, 스마트폰 과의존, 과다사용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정의하는 공식적인 학술용어는 없다.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내성, 금단현상을 가지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된 상태(한국정보화진흥원, 2011)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을 상당한 시간 동안 사용하여 일상생활 문제를 유발시키는 스마트폰에 대한 행동으로 정의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가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소지하는데 제한적이고 사용방법이 미숙하여 특정 매체를 중독이라고 진단할 만큼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중독이라는 개념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선행연구(김송이, 2016)를 따라 ‘스마트폰 과다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영유아의 행동적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영유아 개인 내적 변인 중 하나가 기질이다. 기질은 생애 초기에 나타나는 유전적인 성격특성으로(Buss & Plomin, 2014),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개인차를 의미하며 유전적, 생물학적 기반을 지닌다(Goldsmith et al., 1987). 정의적 측면에서 기질은 영유아의 성격의 기초를 의미하며 이후 행동발달과 환경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기질에 관한 연구(Shiner et al., 2012)에 의하면 기질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연령에 따라 다르게 발현된다. 영유아의 기질을 설명하는 구성요인 중 정서성은 부정적인 정서를 강하게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까다로운 기질(temperamental difficulty)의 구성요인으로 알려져 있다(Buss &

Plomin, 1984).

정서성 기질이 높은 유아의 경우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Yagmurlu & Altan, 2010),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이정숙, 문보경, 2010; 하승수, 2012; Putnam & Stifter, 2005). 그리고 학령 전 아동의 정서성 기질은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및 주의조절력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Eisenberg et al., 1993). 선행연구에서도 유아의 정서성 기질이 강할수록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발달 지연이나 퇴행 현상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권미경, 박현숙, 유주희, 한경옥, 2016). 뿐만 아니라 박소영과 문혁준(2015)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스마트 기기 위험사용자 군은 일반사용자 군에 비해서 정서성 기질이 더 높았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다룬 선행연구(김송이, 김현수, 2016; 이경아, 2013; 이미연, 2014; 정지혜, 2011)들을 통해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질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뿐 아니라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제 3의 변인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질은 자기조절력을 포함한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양육자의 양육태도와 자녀와의 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Paterson & Sanson, 1999). 특히, 부정적 정서 성향을 대표하는 정서성 기질 수준이 높은 영유아는 화나 짜증을 쉽게 내며 그 빈도가 잦고, 양육자가 달래려고 해도 잘 달래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Buss & Plomin, 1984). 자녀가 까다로울 때 주 양육자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Clark, Kochanska, & Ready, 2000), 부모의 역할 수행에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Buss & Plomin, 1984). 즉,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은 양육환경 속에서 부모의 인내심을 저하시키고 거절이나 비승인 행동과 같은 양육태도를 조장할 수 있다(Paterson & Sanson, 1999). 이처럼 높은 수준의 정서성 기질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놀이상호작용의 질을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애정적 및 자율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어머니는 자녀와의 놀이에 높은 참여도를 보이지만(송경은, 2013), 거부적 및 통제적 양육태도를 지닌 어머니는 자녀와의 놀이 상호작용에 참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이한나, 2017)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어머니의 놀이참여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영유아의 기질은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Putnam, Sanson, & Rothbart, 2002). 특히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은 부모로부터 긍정적 정서, 따뜻함 그리고 반응적인 태도를 촉구하여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지는 반면(Eisenberg et al., 2005),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부모의 강제적이며 억압적 태도를 유발시켜서 부모와 부정적 상호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chanska, Friesenborg, Lange, & Martel, 2004). 최근 수행된 Kirchhoff, Desmarais, Putnam 그리고 Garstein(2019)의 연구에 의하면, 걸음마기 자녀와 부모 간의 놀이 상호작용은 자녀의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감각적 예민함의 수준이 높은 영유아의 경우 부모와의 놀이 상호작용에서 상호간의 반응성과 긍정적 정서 수준이 낮고 부모로부터 적극적인 놀이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어머니의 낮은 놀이참여도 간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즉, 정서성 기질이 높은 자녀를 양육할 경우 어머니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어 통제적이고 비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자녀에게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자녀와의 놀이에서도 비 적극적인 참여를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이 문제행동으로 발전하는데 어머니와 자녀 간의 부정적인 관계가 중개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Lee & Bate, 1985).

유아는 놀이를 통해 스스로의 욕구를 조절하며 만족 지연을 경험하는 등 사회적 규칙을 내면화하기 때문에 유아에게 있어서 놀이는 자기조절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이 된다(Berk & Winsler, 1995). 어머니의 놀이참여도 수준이 높은 경우 어머니는 자녀와의 놀이 시에 자녀가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영유아의 행동 억제 기술과 자기조절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전미경, 2017; 최혜순, 김찬숙, 2011).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낮아졌으며(마은실, 2018; 이한나, 2017),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버지의 놀이참여도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문경임, 2017). 반면 놀이에 적절하게 참여하지 않는 부모의 영유아 자녀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오랜 시간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문경임, 2017). 박지영(2015)의 연구에서도 부모교육을 병행한 놀이치료를 통한 유아의 놀이 확장은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부모-자녀 간 놀이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관련된 배경변인을 살펴보면, 남아는 여아보다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스마트 기기 몰입경향성에서 더 높은 수준의 위험도를 보였다(문경임, 2017; 황태경, 손원경, 2013). 또한, 영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권연정, 2014, 문경임, 2017). 영유아의 주중 및 주말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관련하여 위험사용자군이 일반사용자군에 비해 더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박소영, 문혁준, 2015). 이상의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성별, 연령,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통제한 뒤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를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매개하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어머니의 놀이참여도,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영유아와 어머니 274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스마트폰 이용실태 (N = 274)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주중 스마트폰 이용시간		
남아	142	51.8	10분 이하	81	29.6
여아	132	48.2	11-30분 이하	90	32.8
연령			31-60분 이하	56	20.4
2세	88	32.1	1시간 초과	19	6.9
3세	93	33.9	2시간 초과	22	8.0
4세	93	33.9	3시간 초과	6	2.2
출생순위			주말 스마트폰 이용시간		
첫째	235	85.8	10분 이하	77	28.1
둘째	29	10.6	11-30분 이하	75	27.4
셋째 이상	10	3.6	31-60분 이하	56	20.4
어린이집 이용여부			1시간 초과	32	11.7
이용	202	73.7	2시간 초과	22	8.0
이용하지 않음	72	26.3	3시간 초과	12	4.4
어머니 연령			취업여부		
20대	47	17.2	취업	103	37.6
30대	205	74.8	비취업	171	62.4
40대	22	8.0	가계소득		
최종학력			300만원 미만	79	28.8
고등학교 졸업	38	13.9	300-400만원 미만	80	29.2
전문대 졸업	72	26.3	400-500만원 미만	52	19.0
4년제 졸업	137	50.0	500-600만원 미만	25	9.1
대학원 이상	27	9.9	600만원 이상	38	13.9

## 2. 측정도구

### 1)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신광우, 김동일, 정여주, 2011)를 기반으로 하여 유아의 발달에 맞게 김현수와 이미연(2017)이 새롭게 구성한 스마트폰 과다사용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가 만 2세의 영아를 포함하고 있어 적합하지 않은 내용인 4개의 문항을 2인의 아동학 전공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삭제한 뒤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도구는 1개의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총 10문항의 4점 Likert 형식의 척도이다. 본 도구의 문항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린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등의 질문으로 구성된다. 본 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92로 나타났다.

## 2)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영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Buss와 Plomin(1984)의 EAS(Emotional, Activity, Sociability)를 수정·보완한 박혜원(2012)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수줍음의 하위요인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기분이 쉽게 나빠지고 화를 격렬하게 내며 주어지는 자극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정서성’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정서성은 ‘쉽게 화를 낸다’, ‘기분이 상할 때 격한 반응을 보인다’ 등의 정서성을 표현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정서성의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어머니가 평가하는 5점 Likert 형식의 척도로, 내적 일치도 .63으로 나타났다.

## 3) 어머니의 놀이참여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숙재(1984)의 놀이참여도의 단계 및 선행연구(송은혜, 2008; 원희영, 1998; 이영석, 성영화, 2006; 이혜은, 2005; 한영숙, 2006)를 참고하여 윤상인(2011)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점 Likert 형식의 척도로 ‘비참여’ 1점, ‘바라보기’ 2점, ‘소극적 참여’ 3점, ‘적극적 참여’ 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놀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한나(2017)와 마은실(2018)의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는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문항에 포함되는 놀이는 ‘공을 던지거나 굴릴 때’, ‘까꿍 놀이(숨바꼭질)을 할 때’ 와 같이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로 구성된다. 본 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86로 나타났다.

##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매개효과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변인을 통제하였다. 이에 영유아의 성별, 연령,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통제한 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조사에 앞서 온라인 설문 방식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들의 이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G사의 온라인 설문지 링크를 이용하였으며, 30명의 예비조사 대상자를 모집하고 링크 연결을 중단하였다. 예비조사는 총 3일간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나 응답이 난해한 주관식 문항은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보완된 온라인 설문지와 이와 동일하게 작성된 오프라인 설문지를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배부하였다. 온라인 설문지를 통한 자료수집은 2018년 5월 2일에서 29일까지 총 27일간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288부이며, 이 중 영유아가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한 적이 없거나 불성실한 문항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274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3.0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내적합치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통제변수를 통제 한 후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조건을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매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Sobel(1982)의 Z검정을 실시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먼저, 측정변수들의 일반적 경향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은 평균(표준편차) 2.48(.46)로 중간 이상이었으며,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1.96(.37)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즉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은 약간 높은 편이었고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평균(표준편차) 3.45(.45)로 전반적으로 높은 놀이참여 수준을 보였다.

표 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정서성 기질	2.48	.46	1.50	3.83	.27	-.05
스마트폰 과다사용	1.96	.37	1.00	3.70	.32	-.22
어머니의 놀이참여도	3.45	.45	2.10	4.00	-.83	.10

영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어머니의 놀이참여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성별( $r = -.13, p < .01$ ), 연령( $r = .14,$

$p < .01$ )과 스마트폰 이용시간( $r = .64, p < .001$ )은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남아보다 여아가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관련이 높으며, 연령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은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 $r = -.22, p < .001$ )을 보였고,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r = .38, p < .001$ )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부적 상관( $r = -.28, p < .001$ )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이 강할수록 어머니의 놀이참여 수준은 비참여에 가까워지고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경향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놀이참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1. 성별	-					
2. 연령	.04	-				
3. 스마트폰 이용시간	-.13*	.10	-			
4. 정서성 기질	-.04	.23***	-.11	-		
5. 어머니의 놀이참여도	-.09	-.26***	.06	-.22**	-	
6. 스마트폰 과다사용	-.13*	.14**	.64***	.38***	-.28***	-

\* $p < .05$ , \*\* $p < .01$ , \*\*\* $p < .001$ .

주) 영유아의 성별은 dummy변수로 처리함.

## 2.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의 매개효과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검증방식을 사용하였다. 검증 과정에서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변인인 성별, 연령,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통제하였다. 매개 검증에 따른 결과는 표 4와 같다.

그 결과, 1단계에서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이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 $\beta = -.22, p < .001$ ), 2단계에서는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은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유의미한 영향( $\beta = .38, p < .001$ )이 있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종속변수인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beta = -.20, p < .001$ )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은 2단계에서의 값 보다 적고, 종속변수인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유의하게 나타나( $\beta = .33, p < .001$ ),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조건 3단계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01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은 스마트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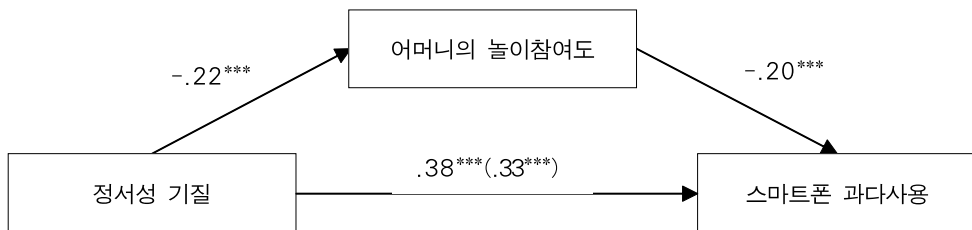


과다사용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영유아의 정서성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의 매개효과

경로		<i>B</i>	$\beta$	<i>F</i>	Sobel <i>Z</i>
정서성	→ 놀이참여도	-.22	-.22***	14.40***	
정서성	→ 스마트폰 과다사용	.51	.38***	45.57***	2.60**
정서성	→ 스마트폰 과다사용	.45	.33***	30.10***	
놀이참여도	→ 스마트폰 과다사용	-.28	-.20***		

\*\**p* < .01, \*\*\**p* < .001.



\*\*\**p* < .001.

그림 1.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의 매개효과 모형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를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은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의 성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유아의 다양한 기질 차원 중에서 정서성 기질만 스마트폰 미디어 과다사용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연구(박소영, 문혁준, 201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유아의 정서성 기질이 스마트폰 사용 정도의 하위 요인 중 일상생활 장애, 가상 세계 지향, 금단, 내성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임연정, 2016)와 맥락을 같이한다. 유아의 정서성 기질은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의 하위요인 중 스마트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스마트폰 사용의 환경적 특성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태숙, 2016).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의 하위요인 중 이상 발달, 과도한 추구, 집착적 사용이 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권미경 등, 2016)를 지지한다.

또한,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은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영유아가 환경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놀이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두 변인 간의 관계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로 유아가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많이 할수록 어머니는 신체적 및 언어적으로 자녀를 통제하거나 부정적인 양육방법을 사용한다는 연구결과(신지연, 2011)를 통해 유추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관계가 있고(Coplan, Bowker, & Cooper, 2003), 어머니가 지각한 영아의 정서성 기질과 어머니의 우울, 스트레스는 관련이 높은 반면(장유진, 이강이, 2014),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낮아진다(김경은, 2011). 이처럼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이 어머니의 자녀 양육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의 하위 요인 중 구성놀이, 신체놀이, 교수놀이, 기능놀이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다사용과 부적으로 상관이 있다는 연구(문경임, 2017)와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는 연구(차가정, 박승주, 2018)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이한나(2017)의 연구결과에서도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자녀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연구의 대상은 다르지만 박옥순(2018)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놀이참여가 높을수록 유아의 스마트폰에 사용에 대한 집착적인 사용이나 과도한 추구가 낮게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와 영유아의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기기 사용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하면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 성향인 정서성 기질이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동시에 어머니의 놀이참여를 매개로한 영향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이 강할수록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정서성 기질이 강할수록 어머니의 놀이참여는 낮아지고 이렇게 낮아진 어머니의 놀이참여를 통해서도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놀이참여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위험회피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에서 애착 안정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연구(김송이, 김현수, 2016)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반응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조인영, 2016)를 통해 유추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영유아의 기질은 주 양육자를 비롯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므로(Shiner & Caspi, 2003),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 반응을 야기하여 어머니의 놀이참여 수준을 낮추며 이로 인해 영유아가 스마트폰을 과다사용하게 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까다로운 기질 성향이 강한 자녀를 둔 어머니는 거부적이고 통제적이며 무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임희수, 1994; Hemphill & Sanson, 2000)를 뒷받침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은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연구(김기현, 조복희, 2000; 남혜순, 2003; 전미순, 2009),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이한나, 2017)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가능하다.

전술하였듯이 정서성 기질 수준이 높은 영유아의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껴서 자녀를 달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경우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위험은 높아질 수 있다. 부모는 스마트기기를 유아가 혼자, 압전히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임선영, 2013), 부모가 자녀와의 놀이에 서툴거나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얻을 필요가 있을 경우 자녀와의 놀이를 원활하게 만들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기도 한다(권연정, 2014). 특히 영유아의 기질이 까다롭고 부정적 정서성이 강할 때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개입 및 제지하는 자세를 취하기 보다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어머니 역할에 변화를 가져와 자녀와의 놀이 시 어머니의 적극적 놀이참여보다 방관/비참여의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는 신체놀이와 구성놀이 등의 상호작용 중심의 놀이에 비해 스마트폰을 사용한 놀이를 더 수월하게 생각하여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영유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과다 사용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김송이, 김현수, 2016).

한편, 박진아, 이경숙 그리고 전연진(2014)의 인터넷 중독군과 정상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보면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정서성으로 인해 어머니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은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이 강할수록 어머니는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겪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과다사용하게 되고 이는 결국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유아 및 어머니 변인의 인과, 구조적 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의 중요성을 밝히고,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의 역할을 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의 매개효과는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예방하고 적절하게 개입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영유아가 까다롭고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더라도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자녀와의 놀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때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크게 완화되고 감소할 수 있다. 즉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예방과 중재의 목적으로 어머니와 자녀간의 놀이는 중요하며, 평소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와의 놀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놀이교육과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당시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부재하여 유아의 스마

트폰 과다사용 척도 문항에서 영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거하고 사용하였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영아 대상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척도 개발 연구가 시급하다.

둘째,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정서성 기질,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의 척도가 모두 어머니의 자기보고 형식의 척도였다는 점이다. 영유아의 발달 특성상 자기 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각하여 보고하는 형식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관찰이나 심층 면접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방법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유아 대상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구들은 스마트폰 과다사용(김송이, 김현수, 2016; 김현수, 이미연, 2017; 박소영, 문혁준, 2015; 이현주, 2014), 스마트폰 과몰입(권미경 등, 2016; 박옥순, 2018; 유지형, 문혜련, 2017; 윤태정, 2015), 스마트폰 과의존(박정아, 2018), 스마트폰 중독경향성(황태경, 손원경, 2014) 등의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12).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601721327](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601721327)에서 2020년 10월 20일 인출
- 구현영 (2011). 아동과 부모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교육 요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2), 296-305. doi:10.5977/JKASNE.2011.17.2.296
- 권미경, 박현숙, 유주희, 한경옥 (2016). 유아기 스마트폰 과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23**(4), 121-138. doi:10.15284/kjhd.2016.23.4.121
- 권연정 (2014). 만 2세반 영아의 스마트기기 이용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중심으로. **육아지원연구**, **9**(1), 213-242. doi:10.16978/ECEC.2014.9.1.009
- 권장희 (2012. 10). **스마트 기기 등 영상 미디어가 영유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육아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제강연 논문, 서울.
- 김경은 (2011).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8**(4), 1-17.
- 김기현, 조복희 (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1**(4), 35-50.
- 김송이 (2016). 유아의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관계에서 애착의 조절 및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송이, 김현수 (2016). 유아의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과의 관계에서 모-유아 애착안정성의 매개 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1**(3), 45-63.

- 김은영, 임신일 (2014). 스마트폰 과다사용 증상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청소년학연구**, **21**(6), 255-279.
- 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부부갈등과 유아의 기질 및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133-150.
- 김태숙 (2016).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의 관계.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수, 이미연 (2017).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관련 있는 유아 개인 변인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2**(1), 1-21. doi:10.23931/kacp.2017.12.1.01
- 남혜순 (2003). 어머니가 지각하는 유아의 기질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아동교육**, **12**(2), 121-135.
- 마은실 (2018).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유아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놀이참여도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경임 (2017).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다사용과 부모 관련 변인.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소영, 문혁준 (2015).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자군에 따른 사용실태 및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22**(3), 25-45. doi:10.15284/kjhd.2015.22.3.25
- 박옥순 (2018). 아버지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아 (2018).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의 공격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의 구조적 관계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영 (2015). 부모교육을 병행한 놀이중심현실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아, 이경숙, 전연진 (2014). 0-3 세 영유아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스트레스, 모-자녀관계 및 자녀의 기질과 행동문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1), 55-70. doi:10.18205/KPA.2014.19.1.003
- 박혜원 (2012). 유아의 기질 및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희숙, 권순용 (2014). 초등학교의 외로움과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3**(4), 303-317.
- 송경은 (201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은혜 (2008).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및 놀이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련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성철, 이기영 (2015). 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의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적응 유연성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24**(4), 221-236. doi:10.17643/KJCE.2015.24.4.12
- 신광우, 김동일, 정여주 (2011).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고도화(3차) 연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신지연 (2011). 유아의 기질 및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 양육행동 간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5(2), 291-312.
- 원희영 (1998). 아버지의 놀이참여 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지형, 문혜련 (2017).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과 과잉행동, 충동성 및 부주의 간의 관계.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1(1), 39-63. doi:10.22590/ecee.2017.21.1.39
- 이정림 (2013). **영유아의 미디어 매체 노출 실태 및 보호대책**.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윤상인 (2011). 맞벌이 부모가 지각한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도와 만 2세 영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태정 (2015). 만 3, 4, 5세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평가 척도 개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아 (2013). 중학생의 기질 및 성격, 애착과 스마트폰 사용과의 관계.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희, 김성재, 유혜진 (2020).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관련한 부모요인 규명: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0(3), 349-368. doi:10.4040/jkan.19186
- 이미연 (2014). 스마트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변인 연구: 유아 성별, 스마트폰 처음사용 연령, 스마트폰 사용능력 및 기질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재 (1984). 유아의 상상놀이와 제 변인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석, 성영화 (2006). 부모의 놀이유형별 놀이참여도 및 일치도와 유아 감성지능과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37-159.
- 이주연 (2011). 유아교육용 스마트폰 앱에 대한 부모 인식 조사: 유아의 행동패턴에 따른 부모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 문보경 (2010). 유아의 기질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4), 55-74.
- 이한나 (2017).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놀이참여도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2014).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문제행동 및 어머니 양육효능감과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은 (2005). 영아의 애착 안정성과 놀이성 및 어머니의 놀이 참여 수준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선영 (2013). 가정에서 유아 스마트폰 사용실태와 어머니의 허용과 인식: 계양구 유아를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연정 (2016).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특성(기질, 자기통제, 문제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희수 (1994). 첫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유진, 이강이 (2014). 영아의 정서성 기질과 어머니의 부정 정서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유아교육연구**, 34(3), 67-84. doi:10.18023/kjece.2014.34.3.004
- 전미경 (2017). 어머니의 놀이참여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놀이성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미순 (2009).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모 반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혜 (2011). 청소년의 기질 및 성격, 방어기제와 휴대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인영 (2016).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 유능성의 관계: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가정, 광승주 (2018). 어머니의 놀이신념 및 참여와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간의 관계 분석-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미래교육연구**, 8(2), 77-109.
- 천희영 (2015). 만 4 세 유아의 스마트폰 이용 정도와 발달특성, 생활시간 간의 관계 및 이용 정도 예측변인.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153-175. doi:10.14698/jkce.2015.11.153
- 최혜순, 김찬숙 (2011). 부모의 놀이참여 수준 및 시간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117-133.
- 하승수 (2012). 청소년의 성격강점과 기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11).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개발연구**. <http://www.schoolhealth.kr/web/bbs/selectBBSList.do?bbsTyCode=BBST01&bbsId=0106&lstnum1=1530&pageIndex=1&pageUnit=10&dataType=&searchCnd=&searchWrd=에서> 2020년 10월 28일 인출
- 한영숙 (2006).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아버지 관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89-212.
- 황태경, 손원경 (2014).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실태와 중독경향성, 자기조절력,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생애학회지**, 4(1), 69-8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10.1037/0022-3514.51.6.1173
- Berk, L. E., & Winsler, A. (1995). *Scaffolding children's learning: Vygotsk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uss, A. H., & Plomin, R. (201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New York: Psychology Press.
- Common Sense Media (2013, October). *Zero to Eight: Children's Media Use in America, 2013*. Retrieved November 12, 2020 from <https://www.commonsensemedia.org/research/zero-to-eight-child->

- rens-media-use-in-america-2013
- Coplan, R. J., Bowker, A., & Cooper, S. M. (2003). Parenting daily hassles, child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in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3), 376-395. doi:10.1016/s0885-2006(03)00045-0
- Clark, L. A., Kochanska, G., & Ready, R. (2000). Mothers' personality and its interaction with chil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2), 274-285. doi:10.1037/0022-3514.79.2.274
-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 (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5), 1418-1438. doi:10.2307/1131543
- Eisenberg, N., Zhou, Q., Spinrad, T. L., Valiente, C., Fabes, R. A., & Liew, J. (2005). Relations among positive parenting,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externalizing problems: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6*(5), 1055-1071. doi:10.1111/j.1467-8624.2005.00897.x
- Goldsmith, H. H., Buss, A. H., Plomin, R., Rothbart, M. K., Thomas, A., Chess, S. et al. (1987). Roundtable: What is temperament? Four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58*(2) 505-529. doi:10.2307/1130527
- Hemphill, S. A., & Sanson, A. (2000, July). *Relations between toddler and preschooler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 in an Australian sampl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Beijing, China.
- Kirchhoff, C., Desmarais, E. E., Putnam, S. P., & Garstein, M. A. (2019).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western cultures: Toddler temperament and parent-child interactions in the United States (US) and Germany.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57*, 101366. doi:10.1016/j.infbeh.2019.101366
- Kochanska, G., Friesenborg, A. E., Lange, L. A., & Martel, M. M. (2004). Parents' personality and infants' temperament as contributors to their emerging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5), 744-759. doi:10.1037/0022-3514.86.5.744
- Lee, C. L., & Bates, J. E. (1985). Mother-child interaction at age two years and perceived difficul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5), 1314-1325. doi:10.2307/1130246
- Paterson, G., & Sanson, A. (1999). The association of behavioural adjustment to temperament, parenting and family characteristics among 5-year-old children. *Social Development, 8*(3), 293-309. doi:10.1111/1467-9507.00097
- Putnam, S. P., Sanson, A. V., & Rothbart, M. K. (2002).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Children and parenting 2nd ed., Vol. 1* (pp. 255-277). Mahwah, NJ: Erlbaum.
- Putnam, S. P., & Stifter, C. A. (2005). Behavioral approach-inhibition in toddlers: Prediction from infancy,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e components, and relations with behavior problems. *Child*



- Development*, 76(1), 212-226. doi:10.1111/j.1467-8624.2005.00840.x
- Shiner, R., & Caspi, A. (2003). Personality difference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Measurement, development, and consequenc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4(1), 2-32. doi:10.1111/1469-7610.00101
- Shiner, R. L., Buss, K. A., McClowry, S. G., Putnam, S. P., Saudino, K. J., & Zentner, M. (2012). What is temperament now? Assessing progress in temperament research on the twenty-fifth anniversary of Goldsmith et al.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6(4), 436-444. doi:10.1111/j.1750-8606.2012.00254.x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doi:10.2307/270723
- Yagmurcu, B., & Altan, O. (2010). Maternal socialization and chil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emotion regulation in Turkish preschooler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9(3), 275-296. doi:10.1002/icd.646